



통권 9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2. 7. 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먼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 중에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20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 2.19일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어찌 더 늦추어야 합니까.

국가보안법은 바로 철폐해야 합니다.

42년을 복역하고 있는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합의서 정신을 살리고 통일지향의 가시적 조치로써 이인모선생님을 비롯한 고향을 북쪽에 두고 있는 모든 장기복역 양심수들이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최상원선생님의 고희연이 베풀어졌습니다.

6월 7일 평생을 민족·민주운동에 몸 바쳐오면서 옥고를 치루고 고난을 당해오신 최상원선생님의 고희연이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과 부경총련주선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전국에서 모인 선·후배 동지들 축복속에 베풀어졌습니다.

■ 6월 8일 김석형 선생님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 제 4차년도 두번째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6월 중 활동계획과 시국 양심수 영치금, 다른 협의체 와의 협력관계에 관해 토의하고 결의했습니다.

■ 6월 13일 민족·민주열사 회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들의 합동추모제가 연대 노천극장에서 범국민추모위원회 주최로 치뤘습니다.

■ 6월 14일 세번째 등반모임이 있었습니다. (산행 참가기 보침)

■ 6월 16일 현대교회 성금 600,000 (6.7월 분)을 출소 장기수선생님 여섯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 출소 장기수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6월 18일 김종환(89년 청주감호소 출소) 성주양로원

6월 21일 유한옥(79세 91년 대전교도소 출소) 꽃동네

김관삼(87년 청주감호소 출소) 꽃동네

■ 6월 26일 5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복역증인 확인된 시국 양심수 9명에게 2만원씩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7월 1일 조영삼씨 1차 공판이 92고단 6단독(심창섭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조영삼씨는 반대 심문에서 공소사실의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이인모선생님께서 북녘 손님들에게 인사라도 할까해서 모시고 올라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5일 오후 2시 321호 법정입니다.

■ 6월 중 아래와 같이 양심수가 풀려났습니다.

석방자 명단(조정현 외는 모두 만기! 출소였습니다.)

이충희 (군인 구속자)-대전에서 6월 19일 출소.

고원준 (군인 구속자, 청주대 자주대오사건)-대전에서 6월 24일 출소.

곽태영 (대우조선)-군산에서 6월 18일 출소.

송명재 (민노투맹사건)-대전에서 6월 29일 출소.

김임섭 (우창기계노조위원장)-광주에서 6월 10일 출소.

박근직 (태평양화학)-군산에서 6월 15일 출소.

정대인 (경남국연총무국장)-대구에서 6월 11일 출소.

이용선 (노정추대외협력부장)-서울에서 6월 23일 출소.

이해학 (목사)- 원주에서 6월 13일 출소.

조성우 (전민련조통위원장)-대전에서 6월 9일 출소.

김경환 (동국대)-부산에서 6월 17일 출소.

박세환 (동국대)-춘천에서 6월 14일 출소.

한종서 (동국대)-순천에서 6월 출소

조현정 (동덕여대졸, 국제사회주의자사건)-성동에서 6월 23일 무죄석방.

김경수 (서울대)-6월 출소.

구태형 (진주경상대)-부산에서 6월 3일 추롯.

이경걸 (한신대)-대전에서 6월 1일 출소.

강옥섭 (롯데제과)-수원에서 6월 19일 출소.

정은주 (롯데제과), 진남경 (롯데제과), 김현순 (롯데제과)

추승자 (롯데제과), 장철규 (롯데제과)

■ 6월 중 아래와 같이 또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자 명단 (6월 1일~30일)

장호봉 (진주경상대)-6월 3일 구속.

이명석 (조선대)-6월 5일 구속.

이진희 (인하대)-6월 8일 구속.

안무균 (조선맥주)-6월 11일 구속.

김명룡 (진주경상대)-6월 11일 구속.

김성귀 (목사)-6월 16일 구속.

정우달 (대구노련의장)-6월 22일 구속.

김정수 (대우기전)-6월 22일 구속.

신승민 (건국대)-6월 21일 구속.

안준환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장인후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권형기 (진주경상대)-6월 3일 구속.

허영 (고려대)-6월 8일 구속.

김진록 (조선맥주)-6월 11 구속.

박주훈 (광주교대)-6월 13일 구속.

김용대 (대우기전)-6월 12일 구속.

강병재 (부산택시노련)-6월 22일 구속.

백승우 (대우기전)-6월 22일 구속.

이종석 (건국대)-6월 21일 구속.

이상수 (건국대)-6월 21일 구속.

황선엽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홍상범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민자당사 점거 사건으로 구속.
 - 이시현 (전남대)-6월 23일 구속.
 - 김승민 (호남신학대)-6월 23일 구속.
 - 정정화 (동아대)-6월 23일 구속.
 - 배용수 (충실대)-6월 23일 구속.
 - 백종선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손만수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임수관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박재춘 (충남대중퇴)-6월 26일 구속.
 - 고용준 (대홍기계)-6월 26일 구속.
 - 고철호 (대홍기계)-6월 26일 구속.
 - 박태성 (서강대)-6월 구속.
 - 최성우 (서강대)-6월 구속.
 - 안철우 (전남대)-6월 23일 구속.
 - 이성렬 (창원대)-6월 23일 구속.
 - 이현 (부산대)-6월 23일 구속.
 - 정명보 (중앙대)-6월 23일 구속.
 - 심태수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김덕민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임종호 (세일중공업)-6월 20일 구속.
 - 홍상철 (대홍기계)-6월 26일 구속.
 - 조정현 (대홍기계)-6월 26일 구속.
 - 이종만 (인천대)-6월 26일 구속.
 - 최한철 (서강대)-6월 구속.
 - 김종일 (인하대)-6월 26일 구속.

■ 새로 회원이 되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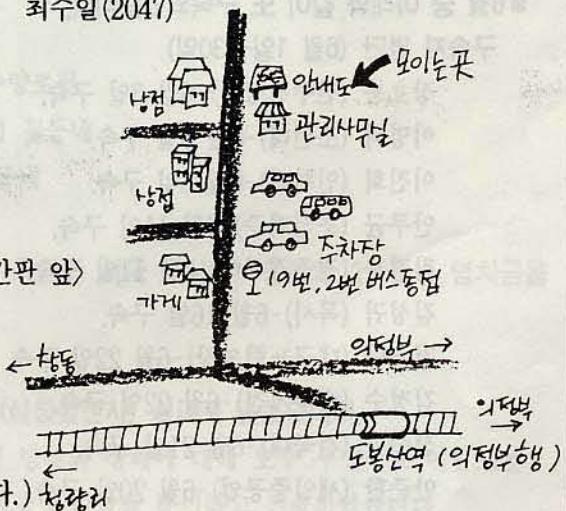
단국대 법대 법사학회 학생회/ 황영태/ 오수강/ 박기협/ 서울대 통일 동아리
 신명교회 여신도회/ 이경남/ 최병성/ 류요선/ 심창래/ 시립대 팀/ 백창순
 현철/ 부산 열심히/ 이용철/ 박재신/ 이영석/ 장정인/ 가청문/ 김자경
 박병규/ 서부교회 인권위

■ 6월 22일 대전교도소에 계셨던 장기수선생님들이 이감되셨습니다.

대구—강용주(3212), 손성모(3299), 조상록(3204)
 광주—김성만(5022), 양희철(5029), 이재룡(5059)
 전주—장의균(2006), 신광수(2053), 최수일(2047)

■ 7월 등반모임 안내

- 언제: 92. 7. 12(일) 이른 10시 정각
- 어디: 도봉산
- 모이는 곳: 도봉산 입구 19번 종점
 <도봉산파출소 옆 도봉산안내도 간판 앞>
- 준비물: 각자, 도시락, 회비 3000원
- 교통편: 시내버스-19번
 좌석버스- 2번
 전철-의정부행 도봉산역에서 내려
 10분 거리 (도봉역이 아닙니다.)



만주에서 꽃동네까지

홍 전 영

무극에 가는 첫차가 아침 9시25분인 줄도 모르고 수원 시외버스 정류장에 한시간이나 일찍 나왔다. 작년 봄에 꽃동네에 계시는 유한욱선생님을 뵙고 온 뒤 1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나간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다. 그동안 틈틈히 편지를 통해 선생님의 안부를 접했지만 짧은 편지로는 궁금증이 더해질 뿐이었다.

권오현회장님과 11시 30분에 무극 정류장에서 만나 꽃동네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가 면회 접수를 하고, 주로 병자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이 기거한다는 [구원집]으로 올라갔다.

조금 기다리다 유선생님께서 얼굴 가득 반가움을 나타내면서 기도실로 우리를 안내하셨다. 기도실이라고 쓰여진 방에는 휠체어와 여려가지 물품이 쌓여 있었고, 낡은 소파가 서너개 있었다. 벽에 마리아상이 있는 그 방은 가끔 이렇게 면회실로 쓰이는 모양이다.

연하늘색 잠바를 걸치신 선생님의 낯빛이 불그레하니 그 연세(79세)에 흔히 있을 저승꽃 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에 맑은 물기가 어린 것처럼 촉촉히 보여서 역시 눈은 마음의 창임을 느끼게 했다. 70년대에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을 당하고 고혈압이 터져 왼쪽 몸을 못 쓰시는 형편인데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 덕분인 것 같았다. 나중에 여쭤보니 원래 물마시기를 즐기는데 하루에 8잔 정도 물을 마시고 잘 배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가지고 간 양념통닭을 맛나게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권회장님과 내게도 먹으라며 권하신다.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감정이 복받쳐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평안도 억양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 하시는 도

중 자주 웃으시고 농도 하시는 여유를 보여 주셨다. 이인모선생님 이야기를 아시냐고 여쭤보니, “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돌아가야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머지않아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뻤습니다.”

어찌 설레이는 일이 아니랴? 1954년 도봉산에서 체포된 이후 37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셨으니…; 그러나 장기수선생님들의 송환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늘 무슨 꼬투리를 잡아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본래 통일의 개념과 의지조차 불순한 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죽을 고비가 세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넘기고 살아남은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나는 매를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비명 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통닭구이다 비녀꼽기다 하는 것을 당하다 보면 그 고통스러움이야 악 소리가 금방 이라도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놈들 앞에 내가 악 소리를 지르겠느냐 하면서…; 버티고 버ти다 보면 기절한 채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저들은 벼락별 짓 거리를 다 했는데, 그 중에는 영화감상문을 억지로 쓰게 하는 것도 있었다. 요즘의 대한 뉴스 같은 관제 홍보 영화를 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글을 써내라고 강요한 것이데 이때마다 선생님은 정론직필을 하셨다. 중동에 건설 노동자를 수출한 것을 보여주기에 선생님은 40도씩 올라가는 더운 나라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입찰하지 않는 헐값으로 자기 나라 노동자를 보낸 것이 뭐가 자랑이냐고 비판하셨다가 끌려나가 기절할 때 까지 매를 맞았다고 하셨다.

한 번은 고혈압마저 터져서 이제는 교회사가 때리는 뜻매를 더이상 버틸 기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목을 맸는데, 줄을 끈 나일론 양말이 낚아서 툭 끊어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내가 대구로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인생향로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교회사라는 자들이 장기수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지만 오세창이니 최00와 같이 악랄하게 고문을 가했던 이들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연민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았다. 그들, 반통일 정권의 하수인으로 인간으로서 차마못할 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들도 통일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인지 자못 염려가 된다.

유한육선생님은 지금도 건장한 체구의 자취가 남아있는데 젊은 시절 만주에서 권투선수 노릇도 하셨다고 한다. 고향은 평북 철산인데 중학시절 동맹휴학을 주동해서 경찰에 쫓겨 만주로 도피한 것이다.

어머니가 다섯 살에 돌아가신 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커던 아버지는 아들을 남겨 둔 채 북간도에 들어가서 아홉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바람에 사촌집에 맡겨진 선생님은 소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설움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 훗날 새 어머니와 돌아온 아버지가 순안학교(안식교회에서 열음)에 보내주어 소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일제시대에 중학 선생님들은 일본인이었는데 늘 조선인을 멸시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다. 조선인은 이가 많고 마늘 냄새가 나고 게으르다는 등, 이에 민족적 의분을 느낀 선생님은 그런 선생에게 배울 수 없다며 동맹휴학을 하게 된 것이다.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굳게 입을 다문 선생님의 고집(?)은 열여섯에 혼자 국경을 넘어가는 의기

로운 소년시절부터 남달랐던 모양이다.

올 봄에는 구원집 병자들을 돌보는 대학 출신의 관리인이 이것저것 캐묻는 틈에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하신다. 그 젊은 이는 분단이 빚은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는지 북한 경제의 낙후성, 6.25 전쟁의 도발의 책임 들을 물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변함없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생각을 나타내셨다고 한다.

사실 난 자유롭게 말씀도 못 하시는 선생님께서 50년대 애치슨 선언의 요지, 1978년 요미우리 신문에서 본 내용부터 GNP 근거까지 정확히 인용하시는 걸보면서 무척 놀랐다.

때아닌 이데올로기 논쟁을 지켜보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47~54년 까지 국가 검사권을 가진 일반검사로 활동한 경력을 안다면 더 놀랬으리라. 그 관리인에게는 민족의 현대사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관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겠고, 덕분에 유선생님은 같은 방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입장이 되셨다고 한다.

“허허, 그래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 있게 되면 나는 구걸하는 개인 취급을 받는 것 같으니 올 겨울을 여기서 넘기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담대하고 한편으로는 느긋하시면서도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 나서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 자신이 큰 힘을 얻었다.

북에 선 줄, 마흔 줄에 접어든 딸과 아들을 두고 있지만, 남한에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소 직후 병든 몸으로 무의탁자 수용시설로 가실 수 밖에 없었던 선생님. 조국통일을 위해 남한 당국자와 담판하러 왔다가 잡힌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올 해 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생님을 서울에 모셔야겠다. 그러기 위해 후원회가 제 몫을 해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꽃동네를 나섰다.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환한 나날로...

이 글은 지난 6월 22일 광주로 이감가신 양희철 선생님이 후원회원 김금자님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주신 글월과 함께 동봉해 주신 6매의 사진 잘 받았습니다. 편지나 사진으로 하여금 꽂지고 있만 키워놓은 채 가버리려는 봄을 아쉬워 하고 있는 나에게 아니, 로인선생님 모두에게 신선한 바람 일구어 삶의 뜻이 무엇인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듣고 볼 수 있는 선물이였습니다. 루진으로 하여 많은 이들에게 심어준 평화, 값진 것입니다. 「루진이 가 혼자 셨지 않아?」, 「사진만 보지 말고 편지를 보라고 걸음마를 한다니까」, 「허허 입 한껏 벌리고 울어재끼던 떡애기가 이렇게 크다니」, 「이 달이 둑이니 그럴만도 하구먼」, 「이봐, 돌보기 좀 줘. 하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 사람, 엄마가 미인이니까 딸이 예쁠 수 밖에」 이런 대화가 끝없이 이어 집니다. 이는 나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만인이 공유하는 행복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사람과 사람에게 전염되어 퍼져 나갑니다. 우리 사방(舍房)이 환한 웃음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요. 이런 환한 나날로 365일 채워졌으면 합니다.

돛 맞이, 우리 루진

영롱한 너의 눈망울, 호수처럼 맑고
사랑이 깃들고 평화가 일렁이는

향기로운 꽃잎 연두빛 새싹도
그게, 봄이던 여름이던
너의 미소에서 손놀림 발걸음에서
너는 만들고 있구나. 너그러운 계절을

불그레한 너의 얼굴 환한 웃음
깜박이는 눈짓에
시름이 어데있고 근심이 무엇이라.

루진아! 우리 루진아!
엄마 아빠의 가난마저도

이웃에, 시골에, 도시에, 온 나라, 온 세상에
질척이고 끈적이는 어두운 밤 마저도
맑고 밝은 너의 온 몸의 빛으로 걷어버 없애고 있는 너

찔레꽃 향내 그윽한
이 5월 19일, 너의 첫 둑을
나의 기쁨 가득 담아 너에게 준다.

— 갇혀있는 대전에서. 할아버지 회철 보냄.

더불어 사는 세상. 가꾸고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겁니다. 처녀적 손에 익은 일이요 미성이기에 함께 힘 합쳐나가는 우리 루진의 집안에 평안 평화 넘칠거예요. 가난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을 이기려는 마음마저 없을 때 그건 하나의 수치스러움이 되겠지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어 고맙습니다. 하도 오랜 세월을 멍청이 간한 채 지나온 어젯날들에 무엇 얻을게 있을까 해서 낸 현법소원이 아니였습니다. 죽지않고 살아서 이런 곳에 나와 같은 인간(?)이 숨쉬고 있다는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의 바램도 저 밑에 깔아 다독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나 그 소원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꽃진 자리에 열매 키우듯 루진과 나 사이에 짙고 아름답게 놓여진 다리(橋)위를 많이 오고가게 하고 고달픈 나그네 건네주는 그런 다리로 남게 노력하기로 해요. 푸르름의 오월, 광주의 오월을 뜻있게 보내기로 해요.

루진의 둑을 축하하면서 안녕!
돌아오는 5월 19일 루진의 둑날이 기다려집니다.

그간의 긴 담안의 봄소식에 앞서 서울의 봄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아, 가슴펴고 달려보자!”

이정옥(26세, 여, 교사, 후원회원)

서울을 벗어나면서부터 밀려서기 시작한 버스가 내달리면 20분 거리를 한 시간 가까이 멈춰거리며 거북이 걸음이다. 공장지대가 들어서면서 폭주할 교통량을 계산에 넣지 못한 단선 도로의 체증현상이다. 처음에는 조급성과 짜증으로 버스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라 창밖의 경치를 즐기기도 한다.

첫 발령을 받아 학교로 향했을 때는 삭막하기만 했던 논바닥에 이들이들한 모가 힘차게 자라고 있다. 논 한가운데 물끄러미 선 백로, 밭에 줄줄이 앉아 파를 다듬어 나가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하얀 꽃잎 다 떨구고 지금은 종이봉지 안에 알찬 과육을 키우는 배밭..., 날마다 이런 풍경을 대하는 데 감격(?)스러워 하는 것도 잠깐이다. 쏟아져내리는 잠에 꾸벅거리다 지나칠 새라 혀등지등 학교 앞에 내린다.

8시. 그 5분을 전후로 여유나 눈치나의 판가름이 난다. 부리나케 5층 맨꼭대기 우리반 교실로 뛰어 오른다. 아이들이 어쩐 일인지 조용하다. 이런 날은 '입다물어' 교장님의 순시와 꾸중이 한 차례 훑은 뒤이다. 교실 안을 분단을 따라 돌며 아이들을 살핀다. '머리띠 하니까 꼭 월매같다!', '숙제는 집에서 좀하지', '병원 갔다 왔어?' 등등 한명 한명 시시콜콜 간섭을 한다. 그렇게 해도 방과 후에 아이들 얼굴을 머리속에 주욱 떠올려 보면 눈에 띄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45명 아이들의 생활을 그날그날 골고루 충분히 읽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한 번은 아이들 보고 담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내라고 했다.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은 우리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에 서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얻었다.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자'는 것이 갓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에게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요구인데, 나 스스로

로도 한 발짝 물려서 있기만 했던 점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했다. 그래야만 이후 제대로 실행하는가를 아이들이 지켜봐 줄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은 항상 예민하고 정확하다.

조회, 종례 시간이면 위에서 내리는 것을 전달하는데도 바쁘다. 대개 일주일에 두세번은 돈, 폐품, 원고 들을 내라는 얘기다. 전달만 하는 선생도 지치는데, 숙제에 준비물에 아이들 입에서는 '어휴! 또!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럴 땐 아이들에게 미안한건 둘째치고 마치 학교의 잡부금징수원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정작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수업시간. 이제 겨우 경력 6개월 짜리 교사인 나도 잔소리에 꾸중에 이력이 났다. 아이들의 무한히 열려진 세계를 낡은 교과서 틀 안에 퀘어 맞추려니 무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부끄럽게 아이들에게만 돌릴 때가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하다. 수업하다 창밖을 내다보면 커다란 포플러 나무가 싱그럽다. 햇빛을 싣고 바람에 눈부시게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궁지에 몰리던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운동장을 내달린다. 뛰고 구르고 깔깔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슬며시 안도의 웃음이 인다. 제도교육의 퀘퀘묵은 틀도 아이들 스스로가 가진 생명력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다. 일년도 채 되지 않은 나의 일터 생활에서 아이들에게서는 희망을, 교무실에서는 절망을 경험했다면 너무 지나친 대비일까! 나도 어느 새 암담한 수렁에 한쪽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아닌가 늘 염려스럽다.

아이들아! 선생님이 떳떳하고 당당한 교사로서고, 너희들이 이 땅의 현실에 뿌리를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펴고 힘차게 달려보자.

평창동 등반 모임을 다녀와서

김 양 순(전문대 근무, 후원회원)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후원회의 등산 모임도 이제 세차례를 거치면서 이번 산행에는 34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한 노력이 엿보였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평창동 북한산을 오른 시간은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먼저 온 권오현회장님이 반가이 맞아 주셨고, 밝은 웃음으로 다가온 여성회원들과 통성명을 하며 오르기 시작하니 어느덧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다.

야영장 윗 쪽으로 자리를 정한 뒤, 권오현선생님이 여울 17기, 작은 물방울, 음시룡, 시립대, 이대간호학과와 같은 예쁜 이름들의 후원회원을 소개한 후, 함께 오신 오래동안 옥고를 치루신 이세균, 이경구, 김중종선생님의 소개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풀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듯 가녀려 보이는 어깨와 정갈한 모습은 오랜 옥고를 치루신 선생님들을 푸근한 할아버지 같으시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담담한 모습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온갖 고충을 이겨낸 승리감도 읽을 수 있었다.

조용한 웃음이 인상에 남는 후원회운영위원 임종인변호사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다. 아침신문에 실린 '노태우대통령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변호사님의 기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했다.

12시를 넘겨 모두들 정성들여 싸온 도시락을 펼치니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푸짐했다. 서로 더 먹으라는 후한 정답속에 빈속을 채워가는 즐거움이 가득찬 점심시간이었다.

점심 밥을 먹은후 진행된 놀이에서는 사회자의 울동을 따라하며, 틀린 조의 노래와 울동이 이어지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어깨동무도 하며, 하나

가 되는 놀이 속에 즐거워 하시는 선생님들은 울동도 노래도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이셨다. 딸 나영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정규씨 가족의 모습과 다정하게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부르시는 황금수선생님 부부의 모습은 젊은 선남선녀의 부러움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했다.

친목의 시간을 아쉽게 끝낸 뒤 다시 남은 산행을 위해 자리를 툭툭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들 발갛게 상기된 모습으로 험한 등산 길을 오르는 동안 선생님들은 젊어서 산속을 오르내리던 빨치산 생각이 나시는 걸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헤치고 나가시는 뒷 모습에 힘이 넘쳐 보였고, 우리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따라 올라갔다. 권오현회장님과 노태훈씨의 길 안내로 안전하게 능선에 오른 우리는 신선한 바람으로 땀을 식히며, 기념 사진도 몇장 찍어 보았다.

모두들 선생님들의 말씀이 듣고 싶어 성큼성큼 산을 내려와 다시 한 자리에 마주하니 숙연함이 감돈다. 분단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30년 이상 감옥생활을 하시며 강제전향을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조여오는 죽음의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이었다는 말씀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평생을 차압당한 채 자신과의 투쟁과 압제자와의 투쟁속에서 지켜온 삶의 철학, 사상, 역사성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알려 주시려는 열정적인 모습에서 진실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았다.

한 인간의 참다운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로 인해 커지는 것일까?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의 민주화와 나의 삶에 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조금 남아 있는 석양을 앞세워 산을 내려왔다.

“통일이 보인다”던 메아리

김 정 아(24. 후원회 회원)

양심수 후원회라는 보이지 않는 큰 깃발 아래 혹은 낯익고 혹은 낯설지만 금방이라도 친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건 6월의 중턱을 넘보는 14일, 북한산을 앞에 둔 평창동 입구에서 였다.

나로서는 두번째 산행을 갖는 시간이었고 여러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하기는 처음이라 가장 먼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앞섰다. 국민학교 1학년 짜리 꼬맹이에서 칠순을 넘기신 이세균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40명 모두는 조국통일 한 길에 선 한 가족이요 동지라는 믿음이었기에 북한산 야영장에 오르는 짧은 시간에 금방 친해지고 서로를 많이 알게 되었다.

야영장 한 자리에 모여 40명 각자 자기소개를 가졌는데, 오랜 시간 조국의 민주화,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시다 30년 이상 옥고를 치르신 선생님들의 생생하고 격이지 않는 조국애의 표현과 제각기 서 있는 일자리는 달라도 후원회의 두리에 뭉친 짧은 청년들의 결의를 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을 저마다의 도시락을 모아 놓으니 진수성찬이다. 먹는데 지칠만큼 배가 두둑해진 다음 놀이를 했다. 여러가지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가 서로의 노래를 듣기위한 수단이나 된 것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벌칙을 기회로 삼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래를 불렀다. (놀이를 하듯 데모하면 못해 낼 일도 없으련만!) 특히 빨치산 투쟁 당시 부르셨다는 선생님들의 장엄하고도 애절한 민요조의 노래가 요즘의 투쟁가요와는 사뭇 그 분위기가 달랐지만 숙연해지는 느낌에 배워보고 싶어지는 노래였다.

6월의 뜨거운 햇볕으로 북한산의 푸르름은 아름다웠고 우리의 오락을 중단시키고 정상 정복의



유혹을 느끼게 했다.

미끄럽고 아슬하슬한 길인데도 모두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거뜬히 목적지까지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 “통일이 보인다.”고 힘차게 외치신 한 선생님을 따라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보인다. 통일이 보인다.”고 외치며 되돌아오는 메아리에 하나의 소리를 확인했다.

다시 야영장에 모여 장기수선생님들의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석하신 세 분이 투쟁한 역사와 하루 빨리 조국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싸워나갈 것을 당부하셨다.

그 날의 만남은 긴 세월 오직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양심을 지켜 싸우신 선생님들과 지금도 끊임없는 회유와 고문·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계시는 모든 양심수분들께 앞으로도 애국의 한 길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 가리라는 새로운 결의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만남의 시간에 더 많은 후원회분들의 참여와 함께 끊임없이 회원 늘리기운동을 벌여나 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했겠다.

뒤풀이를 뒤로하고 돌아오면서 여러 믿음직한 회원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빌어 본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날이 오면 함께 어깨걸고 신명난 한판 춤을 추어야하지 않겠는가!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장기적 영치금 벌승,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시법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벌승)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 험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받는이 :

우원회소식

보내는이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